



5. &lt;보기&gt;에서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점]

## &lt;보기&gt;

이 시는 7개의 문장 단위로 끊어서 감상해 볼 수 있다.

- ① 첫째 문장에서는 커다란 나무를 벤 때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를 뜻하는 '벌목정정'이라는 시구로 시작하여 실제로 나무를 번다는 뜻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한 산의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둘째 문장에서는 그러한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쩌렁쩌렁 골짜기를 울리면서 돌아올 만큼 깊은 산골임을 말하고 있다.
- ③ 셋째 문장에서는 그 골과 울창한 숲은 작은 짐승의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눈 내린 밤은 종이보다 희어 그 적막감이 화자의 마음 깊이 사무치고 있다는 것이다.
- 넷째 문장에서 화자는 오늘 같은 날 때를 맞추어 보름달이 떠오른 것은 지금 같은 밤 분위기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 ④ 다섯째 문장에서는 화자는 여섯 판을 내리 지고도 여유있게 웃고 돌아간 늙은 중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늙은 중의 탈속적 모습이 장수산의 또 다른 이미지가 되고 있다.
- ⑤ 여섯째 문장에는 고요 속에 밀려오는 시름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는 그 시름을 차감고 의연하게 견디겠다고 말한다. 슬픔도 꿈도 모두 이 장수산 속의 겨울 한밤의 적막 속에 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6. (다)에 대한 시구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점]

- ① 허어연 구름 → 직녀가 처한 고난과 역경
- ② 번쩍이는 모래밭 → 견우 앞에 놓인 희망과 기쁨을 상징함.
- ③ 출렁이는 물살과 바람 → 이별의 고통을 형상화한 객관적 상관물
- ④ 불타는 흘몸 → 고독 속에서 지펴지는 사랑의 불길과 인고의 시간
- ⑤ 푸른 은핫물 →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이별과 단절을 상징함.

7.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점]

- 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 기대했던 삶에 대한 절망
- ② 독백의 형식 → 절제되고 단아한 목소리 → 삶에 대한 성찰
- ③ 주어진 삶에 대한 무력감 → 주어진 삶에 대한 체념적 수용.
- ④ 흐르는 물 → 시간의 흐름 → 인생의 저듦과 중첩  
→ 인생의 의미 발견
- ⑤ 현실에서 느끼는 분노와 고통 → 삶을 씻는 행위  
→ 삶을 반추하는 계기

(8~1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속에는 소리가 없소/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없을것이오

겨울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소

겨울 속의 나는 원손잡이오/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원손잡이오

겨울 때문에 나는 겨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료마는

겨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겨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겨울을 안 가셨소마는 겨울 속에는 늘 겨울 속의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까요

겨울 속의 나는 참나와는 반대요마는/또 깨닳았소

나는 겨울 속의 나쁜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펙섭섭하오. - 이상, &lt;겨울&gt;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들고 와/ 여기 있는 ⑧낮선 지역을 바라보노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⑨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렸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寥)을 지킴으로써/ ⑩쌓이는 눈데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

(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青紅)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처음 보는 수풀/ ⑪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올 듯

머언/ ⑫극락 정토 가는 길도/ 보일 성싶다. - 허

8. (가) ~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5점]

- ① 관심의 영역이 내면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면적 성찰에 애쓰고 있다.
- ③ 과거회상의 방식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보인다.
- ⑤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해소되는 조화로운 공간이 나타난다.

9. (가) ~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겨울'이 대상을 거꾸로 비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겨울 밖의 나의 분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가) : 이 시는 분열된 자아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어.
- ③ (나) : 이 시는 '-노라'의 반복으로 엄숙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나) : 화자는 오랜 방황 끝에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통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다) : 이 시는 세상을 점총적으로 뚜렷하게 제시하고 통찰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0. (나)와 (다)의 ① ~ ④ 중, 그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 ① ④ ② ③ ③ ④ ④ ①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불휘 기픈 남고 부르매 아니 월씨 곳 뜨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그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려 바르래 가느니  
- 용비어천가 2장
- (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하 고은 님 여회옹고,  
느 모움 들 뒤 업서 냇고의 안자시니,  
져 물도 느 온 고흐여 우러 밤길 네높다. - 왕방연(王邦衍)
- (다) 동지(冬至)ㅅ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혔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黃眞伊)
- (라) 막암이 임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임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시니 임고 쓴 줄 몰느라. - 이정신(李廷蕙)
- (마) 강호(江湖)에 그울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려 흘리 빠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움도 역군온(亦君恩)이삿다. - 맹사성(孟思誠)

11. 위 글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점]

- ① (가)는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② (나)는 시적화자의 정서가 반영된 사물이 있다.  
 ③ (다)는 기다림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이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추상적인 시간을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이 있다.

12. 위 글에서 서정적 자아의 삶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끼리 짹지는 것은?  
[3.3점]

- ① (가)-(나) ② (가)-(다) ③ (다)-(라) ④ (라)-(마) ⑤ (나)-(라)

13. &lt;보기&gt;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3.3점]

## &lt;보기&gt;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표현이 있다.

청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연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련가. 나 흐나 점어 잊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모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平평生싱애 願원흐요되 혼디 네쟈 흐얏더니, 늙거야 민수 일로 외오 두고 글이었고. 엉그제 님을 되셔 廣광寒한殿면의 올낫더니, 그더덕 엉디흐야 下하界계에 누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크연디 三삼 년년이라. 膾연脂지粉분 잇니마는 놀 위흐야 고이 훌고. 민음의 민친 실음 叠疊疊이 빠혀 이셔, 짓노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인生싱은 有유限흐흐디 시룸도 그지 업다. 無무心심흔 歲세月월은 물 흐르듯 흐는 고야. 炎염涼냥이 쐐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나)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해텨내니, 窓창 밧고 심근  
⑦ 梅미花화 두 세 가지 피여세라. 그득 冷ingga淡담훈디 暗암香향은 민수일 고. 黃황昏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빛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미花화 것거내여 님 겨신 뒤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다) 쟁 디고 새닙 나니 緑녹陰음이 살렸는디, 羅나幃위 寂적實막하고 繡

슈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옹을 거더 노코 孔공雀작을 시룸 한디 날은 엇디 기듯던고. 鶩원鶩鶩錦금 버혀 노크 터내여 금자회 견화이셔 ⑦ 님의 옷 지어내니, 手수品 도도 ㄱ줄시고. 珊珊瑚호樹수 지게 우희 白璧玉옥函함을 게 보내오려 님 겨신 뒤 부라보니, 山산인가 구롬인가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흘 뉘라서 촌자같고. 니거든 여려 실가.

(라) 흐른밤 서리김의 기려기 우러 넬 제, 危위樓루에 정簾념 거든 말이, 東동山산의 ⑦들이 나고 北북極극의 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② 清淸光광을 쥐여내 봇티고져. 樓누 우희 거려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곡 점낫 ㄱ티 링그쇼서.

(마)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흐야 白璧雪설이 혼 빗친 저 새도 긋쳐 있다. 瀟潇湘상 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려커든 야 더욱 닐너 민솜흐리. 陽양春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簪첩 비췬 ④ 희를 玉옥樓누의 올리고져. 紅흉裳상을 를 수반만 거더 日일暮모 脩수竹uds의 헴가림도 하도 헤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淸燈등 거른 것티 鈿연笠 쓸의나 님을 보려 틱밧고 비겨시니, 鶩 양숙금도 촉도 샐고.

(바) 흐른도 열두 쌔, 혼 둘도 셜흔 날, 져근덧 싱각 흐니 모음의 민쳐 이셔 骨골髓수의 뼈텨시니, 扁편鵲작을 엉디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뒤 족족 안니다가, 향 오식 올으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른샤도 내 님 조추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이 선정을 베풀어주길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② 계절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③ 운문적 형식을 빌려 산문적 내용을 표현한 양식이다.  
 ④ 중국고사를 통해 주제의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비유와 상징의 표현을 통해 높은 문학성을 보이고 있다.

15. 위 글에서 &lt;보기&gt;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단락은?

<보기>  
화자의 일편단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으며,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16. 위 글에서 &lt;보기&gt;의 밑줄 친 시어의 의미와 가장

<보기>  
구름이 無心(무심)은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쐐 이셔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_ticks야 光明(광명)은 날빛줄 쌔라가며 엉느니.

- ① 東동風풍 ② 緑녹陰음  
④ 서리김 ⑤ 危위樓루

17. 위 글에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소재는?

- ① ⑦ 梅미花화 ② ⑦ 님의 옷 ③ ② 희  
④ ⑦ 둘 ⑤ ④ 희

(18~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벼들술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집이 높 속의 나락 들락.

至지芻국 총지芻국 傳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갖 고기 쥐노느다.

- 윤선도

(나)

귀쏘리 져 귀쏘리 어엿부다 져 귀쏘리

어인 귀쏘리 지는 훌 새는 밤의 긴 소리 차쁜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紗窓) 여원 종을 솔쓰리도 씻오눈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쫓 알 리는 너  
뿐인가 흐노라.

- 작자 미상

(다)

껍데기는 가라./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려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모든 쇠불이는 가라.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라)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불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한 자국도 셨지 마라, 옷자락을 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곱은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쁜하다.

혼자라도 가쁘거나 가자./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깜치지 마라./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져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李相和), <빼앗긴 봄>

18. 위 글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친화의 상황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하고
- ② (나)는 감정이입된 사물없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 ③ (다)는 분단극복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④ (라)는 계절변화의 아쉬움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가)는 (나)보다 평민의식의 성장으로 볼 수 있다.

19. (다)시에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어의 의미와 유사한 시어끼리 묶은 것은?

<보기>  
시어의 의미 파악을 할 때 시대적인 관점(반영론적 관점)을 고려해 시어끼리 묶은 것은?

- |             |            |      |
|-------------|------------|------|
| ① 사월, 동학년   | ② 껍데기, 알맹이 | ③ 한라 |
| ④ 두 가슴, 그 곳 | ⑤ 흙가슴, 쇠불이 |      |

20. (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킴
- ② 향토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국토의 애정을 표현
- ③ 각 연마다 행의 길이가 점증적으로 길어지고 있음
- ④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 깨달음의 표현이 드러난다.
- ⑤ 자연이 주는 기쁨을 배제한 상태에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21~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반(兩班)이란, 사족(士族)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旌善)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도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러므로 그 고을 군수가 새로 부임할 적마다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림이 몹시 가난한 탓으로 해마다 관가에서 내는 환자(還子)를 타 먹은 지 여려 해가 되고 보니, 어느덧 천 석이나 되었다. 어느 날, 관찰사가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던 중에 이곳에 이르러 관곡(官穀)의 출납을 검열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자 그는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軍糧)을 이다지도 촉냈단 말이냐?”

하고 곧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가두게 하였다. 군수는 그 양반이 위낙 가난해서 관곡을 갚을 방도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가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딴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퍽 곤란한 처지였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⑦아내가 꾸짖기를,

①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고 관곡 갚을 방도조차 없으니 에이 불쌍도 하오. 양반, 그까짓 양반만 찾더니 결국 한 푼어치도 못 되는구려.”  
하며 쏘아붙였다. (중략) 그래서 다시 증서를 고쳐 쓰기로 했다.

하늘이 백성을 냄에 있어 그 백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자는 선비인데 이를 양반이라고 하며, 모든 점에 이로운 것이 많다.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文科)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進士)는 할 수 있다. 문과의 흥패(紅牌)라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 이든 할 수 있어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진사는 나이 삼십에 첫 벼슬을 해도 이름이 나고 좋은 고을에 벼슬을 할 수도 있다. 귀는 일 [A] 산(日傘) 밑 바람으로 하여 희어지고, 배는 종놈의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러진다. 방에는 노리개로 기생이나 두고, 마당에는 곡식 되는 소리가 학 우는 소리 같으니라. 궁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 살아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내 밭 김을 먼저 매개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에 잿물을 먹이고 상투를 불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해도 감히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1. 다음 중 작가의 입장이 ⑦의 입장과 같다고 할 때, ⑦에 담긴 작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점]

- 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비판함.
- ② 무능력하고, 실용적인 능력이 없는 양반을 비판함.
- ③ 모든 것을 돈으로 파악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함.
- ④ 관곡을 갚을 생각도 않고 울기만 하는 무능력한 남편을 비판함.
- ⑤ 글 읽는 것에 빠져서 세상 이치는 알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을 비판함.

22. 위 글을 쓴 작가의 궁극적인 의도를 고려할 때, [A]과 같은 발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3.5점]

- ① 나모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 눈다./여러코 사시에 푸르니 그를 빙아해노라.  
- 윤선도, <오우가>
- ② 십 년을 경영후야 초려 삼간 지여내니/나 혼 간 둘 혼 간에 청풍 혼 간 맛져 두고/강산은 들일 뇌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③ 기력이 풀풀 다 날아드니 소식인들 뉘 전하리./수심은 첨첩한데 잠이 와야사 꿈인들 애니 꾸랴./찰하리 저 달이 되어서 비추어나 볼까 하노라.  
- 작자 미상

- ④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드라 암자,/것년 이 써 잇거늘 가슴이 금즉호여 풀덕 쑤여 내듯다가 거고./모쳐라 놀낸 날식만정 에힐질 번호쾌라.
- ⑤ 가슴에 궁글 동시러케 놀고/원솟기를 눈 길게 너솟 그 삿기 너코 두 놈이 두 굿마조 자바 이리로 훌근 훌적훌 저기는 나남죽 놈대되 그는 아모쪼로나 견외오 살라면 그는 그리 못흐리라.

(23~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⑦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소. 나 오늘 읍내(邑內)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 하려 가실까요.”  
“환자(還子) 맡은 호방(戶房)한테 환자 섬이나 얄어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九死一生)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趙大妃) 국상(國喪) 양이 단단하다 해서 고름에 고슬려 쓰려고 굴뚝 속0 복〔道袍〕 좀 내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⑦“허허 이 사람아 닭구장을 장이 아닌가.”  
홍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청(秩廳)을 들어가는듸,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부러진 헌 파립(破笠) 벼레줄 총총 매여 조사 갓끈 어진 현 망건(網巾) 밥풀 관자(貫子) 노당줄을 뒷통 진 현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놀려 띠고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23. 다음 중 위 글의 ⑦의 행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

- ① 돈이 바로 양반이다.
- ② 떡 사먹을 양반은 눈꼴부터 다르다.
- ③ 가난한 양반 싸나락 주무르듯 한다.
- ④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 한다.
- ⑤ 타관땅 양반이 누가 허좌수인 줄 알랴.

24. 다음 중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⑦과 다른 것은?

- ① 서방인지 남방인지 결인 하나 내려왔다.
- ②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목 들여라, 물
- ③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 단 말이오.
- ④ 신 것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애를 낳으면 그놈의 쓰겠나.
- ⑤ “열녀가 이부를 섬기다니.”/“이부(二夫)가 아니라 오 (李夫)를 말씀이오.”



(29~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⑦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열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 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옳았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십 전짜리 백동화 서 품, 또는 다섯 품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첨 써 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했으나.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종증은 종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 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오라질 년이 천방 지축(天方地軸)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죽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 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애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 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흠뜬 눈은 조금 바루 어졌건만 이슬이 맷히었다. 김 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 보았건만, 못 사 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중략)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 장천(晝夜長川)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 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쳤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 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징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枸盡)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불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봐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운다,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단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죽은 이의 뺨에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

⑦ “설렁탕을 사다 놀았는데 왜 먹지를 못 하니, 왜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29.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⑦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통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다.
- ② 눈과 비가 맞물려 내리는 배경은 김 첨지가 아픈 상황을 묘사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 ③ 인력거꾼인 김 첨지에게 손님이 많은 개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④ 비가 내리는 배경을 통해 작품 전체에 밝은 분위기와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긍정적인 의미인 ‘눈’이 되려다가 아깝게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암시한다.

30. 위 글을 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⑦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김 첨지와 같은 하층민에게 운수 좋은 날은 없다.
- ② 평소에 말을 험하게 쓰면, 그 말대로 되기 마련이다.
- ③ 김 첨지와 같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내를 내버렸다.
- ④ 익지 않은 조밥을 먹고, 비싼 설렁탕을 주문하는 등 부끄러운 행동을 부르고 만다.
- ⑤ 돈에 눈이 멀어 아픈 아내를 내버렸던 김 첨지는 하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 준다.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시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문산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평가개념 : 작품 이해 [3.5점] **정답** ①

(라) 시의 화자는 '삶을 씻고' 있는 노동자이다. 화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강가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떠오르는 달을 보고 마을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주어진 삶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다.

## [ 8 ~ 10] 지문 해제

## [가] 거울 - 이상

\* 주제 : 현대인의 자의식의 분열과 갈등

\* 특징 : 역설적 표현과 초현실주의의 기본 방식인 자동 기술법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 반(反)이성주의의 소산인 다다이즘의 영향에서 비롯된, 기존의 문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부정 정신으로 돌아간다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적하지 못하는 자식인의 무능과 허위를 폭로하고, 시인 스스로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 해제 : <카톨릭 청년>(1934. 10)에 발표된 '거울'은 의식의 분열, 자동 기술법 등 초현실주의적 특징을 드러낸 쉬르레알리즘 시이다. 이상(李箱)은 특이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모습을 대칭적으로 보여 주는 거울의 기능에 착안하여 현대인이 겪는 자아 분열 현상을 형상화한다. 즉, 이 시는 무의식(無意識)의 세계를 예술의 원리로 강조했던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으로, 한 인간의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사이의 분열을 다루어 자아가 분열해 가는 과정과 그에 대한 지각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의 역설적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독특한 화술의 기교로써 이상(李箱) 특유의 자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작품에는 고뇌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인 '나'와 현실을 초극한 또 하나의 자아인 '거울 속의 나'를 등장시켜서 두 자아의 대립과 모순을 통하여 순수 자아를 상실하고 고민하는 현대 의식의 비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李箱)의 시도(試圖)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일부에서 외연을 당하기도 했지만, 시단에 큰 자극이 되어 우리 시가 정신적인 20세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 [나] 눈길 - 고은

\* 주제 : 명상을 통해 다다른 무념무상의 경지

\* 특징 :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눈이 내리는 한겨울의 풍경을 보면서 지난 날의 고통과 번뇌가 정화되어 명상적이고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는 상태를 노래한 작품이다

\* 해제 : 1958년 <현대문학>지 11월호에 [봄밤의 말씀], [천은사운(泉隱寺韻)], [눈길] 등 세 작품이 서정주 시인의 추천을 받아 발표된, 데뷔작으로서 첫시집 [피안감성(彼岸感性)]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눈길]은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본디 [속(續) 눈길]이라도 하였으나, '속(續)'자를 빼고 보통 [눈길]이라 불리운다. 이 시는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며, 긴 방황과 고뇌를 가라앉히고 명상에 잠기는 체험을 노래한 시다. 눈길을 보는 화자의 시야에 어린 인식의 추이를 쫓아 보자.

## ▶ 김수영의 「눈」과의 공통점

\* 김수영 「눈」의 '눈' - 순수함을 통해 속물적인 더러움을 씻고 깨끗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 고은 「눈길」의 '눈' - 화자의 지나온 괴로운 과거의 길을 모두 덮어줌으로써 화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 [다] 자수 - 혀영자

\* 주제 : 자수를 통한 고뇌의 극복

\* 특징 : 서정적, 여성적, 성찰적인 성격을 지닌 시로 전개하고 있다.

\* 해제 : 여성적인 섬세함과 강렬한 생명력이 결합된 시자의 대표작으로, '수놓기'라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고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체험을 노래한 시이다. 어와 감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일상 속 통해 자신의 삶의 깊이를 성찰하는,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화자는 슬픔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삶을 살

8. 평가개념 : 공통점 찾기 [3.5점] **정답** ②

(가)의 화자는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반성하고 있다.(나)의 화자는 겨울의 풍경을 보면서 지난 날의 고통과 번뇌가 정화되어 정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으므로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수를 놓으면서 평온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9. 평가개념 : 비교 감상 [3.5점] **정답** ②

(가) 시의 화자는 자의식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반성한다. 하지만, 의식과 행동, 이성과 감정, 반성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에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면서도 불가능한 모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②는 적절하지 않다.

## 10. 평가개념 :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 [3.2점]

⑥의 '지나 온 어느 나라는'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적인 방황으로 인해 여기 저기 거닐며 해석된다. 그러나 ④, ⑤, ⑥는 화자가 내면적 성장을 통해 정화된 정신적 경지를 의미하므로 ⑥와 그 의미가 융통된다.

## 고전시가

## 12. 평가개념 : 서정적 자아의 삶의 태도

지문에서 (가)는 시적 대상인 나라의 번성을 나타내며, (나)는 자아의 모습은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 반면 (라)와 (마)는 자연에서의 삶을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 16. 평가개념 : 시어의 내용 정리

<보기>의 구름은 조정의 간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산'이 적절하다.

## 19. 평가개념 : 반영론적 관점에서 시어의 의미 파악

지문에서 '사월'은 4.19의거를 '동학년'은 동학농민전쟁에서 반영론적 관점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 고전산문

[ 21 ~ 22] 지문 해제

## 양반전

- \* 주제 : 양반의 허위 의식과 위선 비판.
- \* 내용 : 양반의 허위 의식과 위선을, 양반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 해제 : 박지원의 한문 소설 중의 하나로, 박지원의 소설은 당시의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지원 또한 양반이라는 지배 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지배 계층을 비판하므로, 체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양반전'도 마찬가지로 양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반이 양반답지 않게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양반과 평민을 가르는 신분 제도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

21. 평가개념: 작가의 의도 [3.2점] **정답** ②

작가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2. 평가개념: 표현의 특징 [3.5점] **정답** ④

위 글의 표현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풍자'이다. '풍자'적인 표현의 특성이 드러나는 글은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팝박하고 착취하는 것을 풍자한 ④번이다.

## 홍보가

- \* 주제 : 권선징악, 빈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
- \* 내용 : 형제인 홍보와 놀보가 있었는데, 놀보가 홍보를 집에서 쫓아 내어 홍보는 먹고 살 것이 없어 가족들을 데리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던 중,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는 다음에 박씨를 물어 준다. 홍보가 박씨를 심자, 무력 무력 자라서 탐스러운 박이 열린다. 박을 타니,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궤, 징 등의 보물이 쏟아지고 홍보는 부자가 된다. 그러나 홍보를 따라한 놀보는 오히려 벌을 받아 가진 것을 잊게 된다.
- \* 해제 : 판소리 작품으로 후에 판소리계 작품으로 계승되는 작품이다.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평민 의식의 성장이 작품에 담겨져 있어, 빈부 격차에 대한 의식, 양반의 허위 의식 등이 나타나 있다. 본문은 양반의 허위 의식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23. 평가개념: 작품의 비판 의식 **정답** ④

양반의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부분으로, 홍보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속담을 찾으면 된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한다'는 속담은 양반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도, 절대로 체면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속담으로, 본문의 내용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24. 평가개념: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정답** ②

②은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중에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기 중에서 ②은 주어를 바꾸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 양주 별산대 놀이

- \* 주제 : 양반 계층 풍자
- \* 내용 : 말뚝이는 과거를 보러 가는 양반들을 모시고 이를 구경하다가 그만 잘 곳을 못 구하게 된다. 말뚝이에게 부탁하여 의막을 정해 달라고 하고, 쇠뚝이는 데 놀이에게 권한다.
- \* 해제 : 양주에 전해 내려 오는 산대놀이로, 산대놀이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25. 평가개념: 시대적 배경 추측 **정답** ④

본문에 특별히 쇠뚝이가 양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양반을 비판하는 평민의식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평민들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6. 평가개념: 대상을 대하는 태도 **정답** ④

양반을 비하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된다. ②은 양반을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편지'를 위해 관계를 맺어두고,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과 다르다.

## 금수회의록

- \* 주제 : 인간의 비도덕성 풍자
- \* 내용 : '나'는 꿈에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 평가하는 된다. 동물들은 인간들의 비도덕성과 부도덕함을 신랄하게는 인간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 \* 해제 : 신소설 중에서 가장 비판의 강도가 높은 신소설 초기의 금수회이다. 동물의 입을 빌어 인간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오웰의 '동물 농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사하고 연설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소설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동물의 이야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적인 것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27. 평가개념: 말하기 방식 **정답** ①

까마귀는 권위자의 말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려지는 말한 사람은 모두 까마귀의 연설문 속에 나와 있다.

28. 평가개념: 사실적 이해 **정답** ④

효도의 중요성, 까마귀의 효성, 인간의 불효와 악행, 그리고 해 말한 사람은 모두 까마귀의 연설문 속에 나와 있다. 효 이외에도 가진 덕성은 앞으로 말하겠다고 밝힌 것으론 않는다.

## 현대산문

## 운수 좋은 날

- \* 주제 :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
- \* 내용 : 하층민인 인력거꾼 김첨지는 병든 아내를 두 집을 나온다. 그 날 따라 손님은 많고, 김첨지는 일찍 말이 마음에 걸리지만 손님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늦게다. 술을 마시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설렁탕을 사 가지고지만 아내는 이미 죽어 있다.
- \* 해제 : 현진건의 사실주의 소설. 반전과 제목의 반

| 하층민의 삶을 비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배경의 상징적 의미와 김첨지의 심리, 비극적인 결말 처리까지 구조가 탄탄한 한국 근대 문학의 백미이다.

## 29. 평가개념: 배경의 역할

정답 ②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통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김첨지에게 손님이 많은 개연성을 제공하여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가 내리는 배경을 통해 작품 전체에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눈’이 되려다가 ‘비’가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무언가 잘 되려다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는 작품 전체의 구조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첨지는 비를 보면서 아픈 아내를 추억하지는 않는다.

## 30. 평가개념: 작가의 의도

정답 ①

이 소설의 주제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김첨지의 삶을 통해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문산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재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